

## 월비스 한림법학원 30회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수기

안녕하세요. 제30회 감정평가사 시험 최종합격한 김OO 평가사입니다.  
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이번에 합격하였습니다.  
다년간에 걸친 수험기간 동안 느끼고 후회한 바를 적어보겠습니다.  
합격의 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1. 1차 시험

1차는 기출문제를 토대로 방향을 잡고 무한반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1차를 준비하시는 분은 2차 공부에 욕심내지 마시고, 1차를 보수적으로 하여 기본기를 탄탄히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년차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다시 2차 시험을 보게 될 때 느리지만 빠르게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 2. 2차 시험

#### 1) 실무

실무는 여지훈 평가사님의 커리큘럼을 따라 갔습니다. 강의를 수강하면서 패스를 반복적으로 풀어 기본기를 쌓았습니다.

주말에는 한림 스터디를 다니면서 활용능력을 키웠고 시험에 나올 주제를 빠짐없이 잡아주시고 A급 등을 정리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궁금한 점을 여쭙보면 귀찮으실 텐데도 잘 이해되도록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실무로 해매고 있을 때 여지훈 평가사님께서 매일 200점을 풀되 100점은 실전과 같이 풀고 나머지 100점은 문제분석만 간략히 하라고 조언해 주셔서 그렇게 하였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것저것 많은 시중 스터디 문제를 풀었으나 수박 겉핥기식이 되었고, 올해는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는 마음으로 범위를 줄여 한림스터디 문제를 위주로 준비하였고 법전을 중요시 하였습니다.

실무는 시험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어느 시험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 보던 주제라도 낯선 형태로 나올 것이며 모르는 것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100분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전략을 세우고 아는 것에서 최대한의 점수를 내고 모르는 것은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되 최소한의 점수라도 받기 위해 법적근거나 판단근거 이론적 내용이라도 쓰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실무과락을 넘기는 것이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2) 이론

이론은 먼저 실무기준해설과 시중 책 하나를 정해서 이것만이라도 완벽하게 암기한 후에 생각의 폭을 넓히기 위해 다른 책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이론과락으로 떨어진 적도 있는데 이것저것 본다고 욕심만 많이 내고 한권도 제대로 소화 못한 것이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브를 만드는 과정에서 체계가 잡히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추가목차가 생각나고 글쓰기가 수월해지면서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정민 평가사님께서 무난하게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문제를 내어주셔서 도움이 되었고 최동진 평가사님께서 특강을 통해 목차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론은 정말 방대하고 난감한 과목인거 같습니다. 책에서 보지 못한 문제가 나와도 나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모른다는 생각을 하시고 내가 공부한 것을 최대한 끌어내서 활용해서 적는 것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 3) 법규

행정법은 처음에 이것저것 수강하여 보았지만 방향을 잡지 못하였고 김기홍 선생님의 행정법 강의를 수강하고 나서야 체계를 잡을 수 있었고 자신감 있는 과목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험은 행정법의 깊이 있는 논의보다 답안지에 쓸 만큼의 분량을 준비해서 시험전날 1회독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시험장에서 빠르고 완벽하게 서술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개별법은 논점별로 정리하되 논점별 중요판례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판례를 준비하되 해마다 중요시되는 판례가 새로 조금씩 추가되고 변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현진 평가사님께서 스터디를 통해 중요판례와 A급 논점을 토대로 매주 문제를 내주셔서 이 부분을 연습할 수 있었고 모르는 판례가 나왔을 때의 대처방법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도움 받았습니다. 법규도 무엇보다 법전이 중요하며 마지막까지 범위를 줄여가며 A급 위주로 반복 암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맺음말

저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정말 내 인생의 빛은 없구나, 나는 안되는구나 하고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합격이 찾아왔고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하늘은 큰 선물을 주기 전에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시험한다고 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버티고 또 버티세요. 저도 합격했으니 여러분도 반드시 합격합니다. 수험생활은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나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고 싶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기분 좋은 순간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31기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